

**민주노동당**

**제2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학교**

---

◎일 시. 2007년 6월 30일(토) 11시 ~

7월 1일(일) 12시

---

◎장 소. 대전 근로자복지회관

---

전날



**민주노동당**

**제2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학교**

---

◎일 시. 2007년 6월 30일(토) 11시 ~

7월 1일(일) 12시

---

◎장 소. 대전 근로자복지회관

---

민주노동당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교육(윤성봉)  
 교육(윤성봉)

1시 (토) 12월 20일 300원 (사 별)  
 1시 (토) 12월 20일 15원  
 1시 (토) 12월 20일 15원

민주노동당 제2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학교 일정

시간	일정
첫째날(6월 30일)	
10:00	등록
10:40	▶ 이해삼 최고위원 인사말 ▶ 진행자 소개
11:00	몸 풀기, 마음 열기
12:00	점심
13:00	체험하기1 ▶ 비유와 상징 ▶ 동그라미의 비밀(이다, 아니다) ▶ 산재 숨은 그림 찾기
15:00	체험하기2 ▶ 차별의 꽃, 평등의 꽃 (편견카드, 평등카드) ▶ 평등의 눈으로 신문 읽기 ▶ 성희롱이 뭐야?
17:00	교육(윤성봉) ▶ 노동인권교육의 원칙, 의미, 방법
18:00	저녁
19:00	체험하기3 ▶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카드, 권리카드)
21:30	발표 및 토론 (김규남) ▶ 광역 시도별 노동인권교육 사례발표 및 문제점 해결방안 찾기
22:00	덧풀이
둘째날(7월1일)	
08:00	아침식사
09:00	체험하기4 ▶ 다같이 놀자, 일터 한바퀴(보드 게임)
10:30	체험하기5 ▶ 똑딱똑딱, 조건별 프로그램 만들기
11:30	사업발표 및 토론 ▶ 07년 민주노동당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 기획안 토론
12:00	평가 및 졸업식



## 자료집 순서

1. 이해삼 최고위원 인사말
2. 조 및 모듬 편성표
3. 몸 풀기, 마음 열기
4. 체험하기1
  - ▶ 비유와 상징
  - ▶ 동그라미의 비밀(이다, 아니다)
  - ▶ 산재 숨은 그림 찾기
5. 체험하기2
  - ▶ 차별의 꽃, 평등의 꽃(편견카드, 평등카드)
  - ▶ 평등의 눈으로 신문 읽기
  - ▶ 성희롱이 뭐야?
6. 교육
  - ▶ 노동인권교육의 원칙, 의미, 방법
  - ▶ 청소년인권에 대해서(영상)
7. 체험하기3
  - ▶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카드, 권리카드)
8. 발표 및 토론
  - ▶ 광역시도별 노동인권교육 사례발표 및 문제점 해결방안 찾기
9. 체험하기4
  - ▶ 다같이 돌자, 일터 한바퀴(보드 게임)
10. 체험하기5
  - ▶ 똑딱똑딱, 조건별 프로그램 만들기
11. 사업발표 및 토론
  - ▶ 07년 민주노동당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 기획안 토론
12. 비정규차별신고센터 및 노동상담소

## 몸풀기 마음열기

### ● 인형 던지기(5분)

- 활동 이름 : 인형 던지기
- 목적 : 참가자와 교육자 사이의 어색함과 경직된 분위기를 깬다.
- 방법 : 참가자들을 원으로 서게 한 다음, 한 사람이 인형을 들고 “나는 \_\_\_\_\_을 좋아하는 \_\_\_\_\_입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인형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준다. 인형을 받은 사람은 “나는 \_\_\_\_\_에게 인형을 받은 \_\_\_\_\_을 좋아하는 \_\_\_\_\_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다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인형을 던진다.

### ● 그림으로 자기소개하기

- 그날의 기분을 간단한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설명과 함께 자기 소개한다. 지금의 기분상태, 참가하는 마음 등을 들을 수 있다.
- 기본적인 이름과 지역 자기소개등을 한다.
-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 ●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 의자 하나를 치우고 한사람이 서고 나머지는 모두 둘러 앉는다.
- 한사람이 상대방앞에 가서 서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어본다 앉아있는 상대방이 ‘예’라고 말하면 지나가고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 앉아있는 사람이 ‘모자쓴 이웃’ 또는 ‘청바지 입은 이웃’ 등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피서 이야기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바꾼다.
- 어색함을 풀고 자리도 골고루 섞고 웃을 수 있는 게임이다.

### ● 나의 신체도 그리기

- 비어있는 나의 신체도 그림에 나의 특징등을 쓰고 발표한다.

### ● 눈보고 상대방 그리기

- 참가자들을 둘씩 묶는다.
- 종이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상대방 얼굴을 그린다.
- 서로 자기 소개를 한다.
- 그림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서로 소개해준다.



## 비유와 상징

### ● 목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 및 개인을 인식(차별, 배제, 시혜, 동정 등)을 비추어본 뒤, 차별과 배제의 인식을 갈라내고 (노동)인권 감수성을 기르자

### ● 진행 방법

- 1) 모둠별로 진행하고 전체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
- 2) 개인별로 쪽지를 한 장씩 나누어 준다.
- 3) 쪽지에는 "@@노동자" 등 사회적으로 편견과 배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집단이 적혀있다.
- 4) 쪽지를 받은 개인은 쪽지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각자 그 단어에 해당하는 '비유'와 '상징'을 생각한다. 이 때 비유와 상징은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하며 각각 3개씩 적어본다. (구분 없이 5개, 6개를 제시할 수도 있다.)
- 5) 비유와 상징 적기가 끝나면 한명씩 그 비유와 상징을 하나씩 발표하고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답을 맞춰본다. 답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한다.
- 6) 6개의 비유와 상징을 다 발표한 뒤 정답을 공개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공유한다.
- 7) 진행자는 모든 사람의 발표가 끝난 후에 사회적 인식, 개인의 인식을 정리한 뒤 차별과 배제 등에 대해서 정리한다.

### ● 주의

- 1)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성인들과 진행할 경우 식상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 2) 정답 자체를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답 맞추는 과정에서의 솔직한 대화, 대화를 통한 편견과 배제의 인식을 깨닫는 것이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동그라미의 비밀

### ● 목표

노동인권의 주체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 직업의 이름은 다르지만 노동자라는 큰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함을 깨닫도록 한다.

### ● 진행 방법

- 1) 커다란 원이 그려진 전지를 모둠별로 하나씩 나누어 준다.
- 2) 여러 직업이 적힌 카드 혹은 사진을 나눠주고, '노동자'인 경우는 원의 안쪽, '노동자가 아닌' 경우는 원의 바깥에 붙여보게 한다. 작업 카드나 사진에는 노동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직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도록 한다.
- 3) 분류 작업이 끝나면 결과를 발표해 본다. 어떤 기준으로 원의 안과 밖이 구분되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한다.
- 4) 노동자와 비노동자를 가르는 핵심기준이 무엇인지 토론해보고 정리해 본다.(진행자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준다)
- 5) 원의 안과 밖에 잘못 붙여졌거나 경계선에 놓여진 직업을 다시 붙여본다.

### \* 이렇게도 해봐요! \*

적은 수가 참여하는 교육일 경우, 다음과 같이 좀더 역동적인 활동도 가능하다.

#### ☞ 진행 방법

- 1) 목에 걸거나 가슴에 붙일 수 있는 직업 카드를 참가자 수만큼 만든다.
- 2) 바닥에 커다란 원을 표시해 놓은 다음,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 안으로 들어가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 밖에 남아 있으라고 한다.
- 3) 이 때, 참가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원의 안과 밖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피한다. "네 직업은 00이고 ~이니까 원 안으로 와야 해", "아니야, 너는 ~한테 어째서 노동자야? 원 밖으로 나와"라는 식으로 참가자들끼리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 4) 안과 밖 구분이 모두 끝나면, 진행하는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직업을 가르는 핵심 기준"을 설명해 준다.
- 5) 이 기준에 따라 원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원 밖에 남겨진 사람들은 자리를 이동한다.



## 사과열매의 주인

### ● 목표

사회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노동이 하는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 ● 진행방법

1) 아래의 글을 함께 읽어 본다.

#### 과수원 삼 형제 이야기

한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버려진 땅을 열심히 일구어 사과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과수원 땅을 물려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사과나무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과수원을 돌보 노동을 물려주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재산이 늘어난 것에 기뻐하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반면 셋째 아들은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노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1년 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세 아들이 서로 사과열매를 갖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만약 땅이 없었더라면 사과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었겠냐며 사과열매는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린 것이니 당연히 나무 주인인 자기가 열매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과수원 땅도 사과나무도 자기 것이 아니지만, 1년 동안 자기만 열심히 일했는데 형들이 사과열매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처럼 느껴졌습니다.

\* 출처 : 위기철의 "사과열매는 누가 가져야 옳은가?"  
(「남북어린이가 함께 보는 창작동화5 : 돌아오지 않는 까비」,  
창작과비평사)를 줄여서 이야기로 엮었다.

2. 글을 읽고 난 뒤, 사과열매는 누가 가지는 것이 옳은지, 만약 세 아들이 나누어 갖는다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적당한지 토론해 보도록 한다.

3.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토론해 본다.

4) 토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 [읽을거리1]을 함께 읽어 본 뒤 추가 토론을 벌인다.

[읽을 거리]

## 과수원 삼 형제 이야기

한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버려진 땅을 열심히 일구어 사과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큰 아들에게는 과수원 땅을 물려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사과나무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과수원을 돌보 노동을 물려주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재산이 늘어난 것에 기뻐하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반면 셋째 아들은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노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1년 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세 아들이 서로 사과열매를 갖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만약 땅이 없었더라면 사과나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었겠냐며 사과열매는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린 것이니 당연히 나무 주인인 자기가 열매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과수원 땅도 사과나무도 자기 것이 아니지만, 1년 동안 자기만 열심히 일했는데 형들이 사과열매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처럼 느껴졌습니다.

\* 출처 : 위기철의 "사과열매는 누가 가져야 옳은가?"  
(「남북어린이가 함께 보는 창작동화5 : 돌아오지 않는 까비」,  
창작과비평사)를 줄여서 이야기로 엮었다.



## 차별의 꽃, 평등의 꽃

### ● 목표

- 불합리한 이유로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구조와 그 구조를 뒷받침하는 편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편견과 고정관념을 뒤집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 ● 진행방법

- 1) 먼저 '차별의 꽃'을 나누어준다. 차별의 각 꽃잎에는 성별, 외모, 장애 여부, 학력, 국적 등 다섯 가지 기준이 적혀 있다.
- 2) 모듈별로 안쪽의 작은 꽃잎에는 각 기준에 따라 차별받는 집단을, 바깥의 큰 꽃잎에는 각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서 있는 집단을 생각해 적어 보도록 한다.
- 3) 각각의 차별을 뒷받침하는 '편견 카드'를 나누어준 다음, 관련된 꽃잎을 옆에 붙여 보도록 한다.

#### \* 편견 카드의 예

"여자가 무슨 -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지"  
"이렇다면 다홍치마,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가 중요하지"  
"빨리빨리! 장애인이 느껴지고 사무실 이미지도 망친다니까"  
"이거라도 감지덕지해야지. 남의 나라에 온 주제에..."  
"억울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갔으면 됐잖아"

- 4) 각 '편견 카드'의 옆에 '평등 카드'를 만들어 붙여보도록 한다. 편견 카드에 적힌 문장을 평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면 된다.

### ● 배경 정보

■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명문대'졸업생들이 겪고 있는 차별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인터뷰 기사나 사례

#### ■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노동의 권리
- (B)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 ● 준비물

'차별의 꽃' 그림, 편견 카드, 색지



## 노동재해 숨은 그림 찾기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재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 ● 목표

노동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다양한 경우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진행방법

- 1) '노동재해 그림판'을 모둠별로 하나씩 나누어 준다.
- 2) 그림을 보면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장면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노동재해다 혹은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3) 모둠별 토론 결과 발표가 끝나면, 노동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한 [정답해설]을 나누어 준다. 해설을 읽어본 다음, 전체적으로 노동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놓친 그림이 없는지 재검토해 본다.

## 안전 도우미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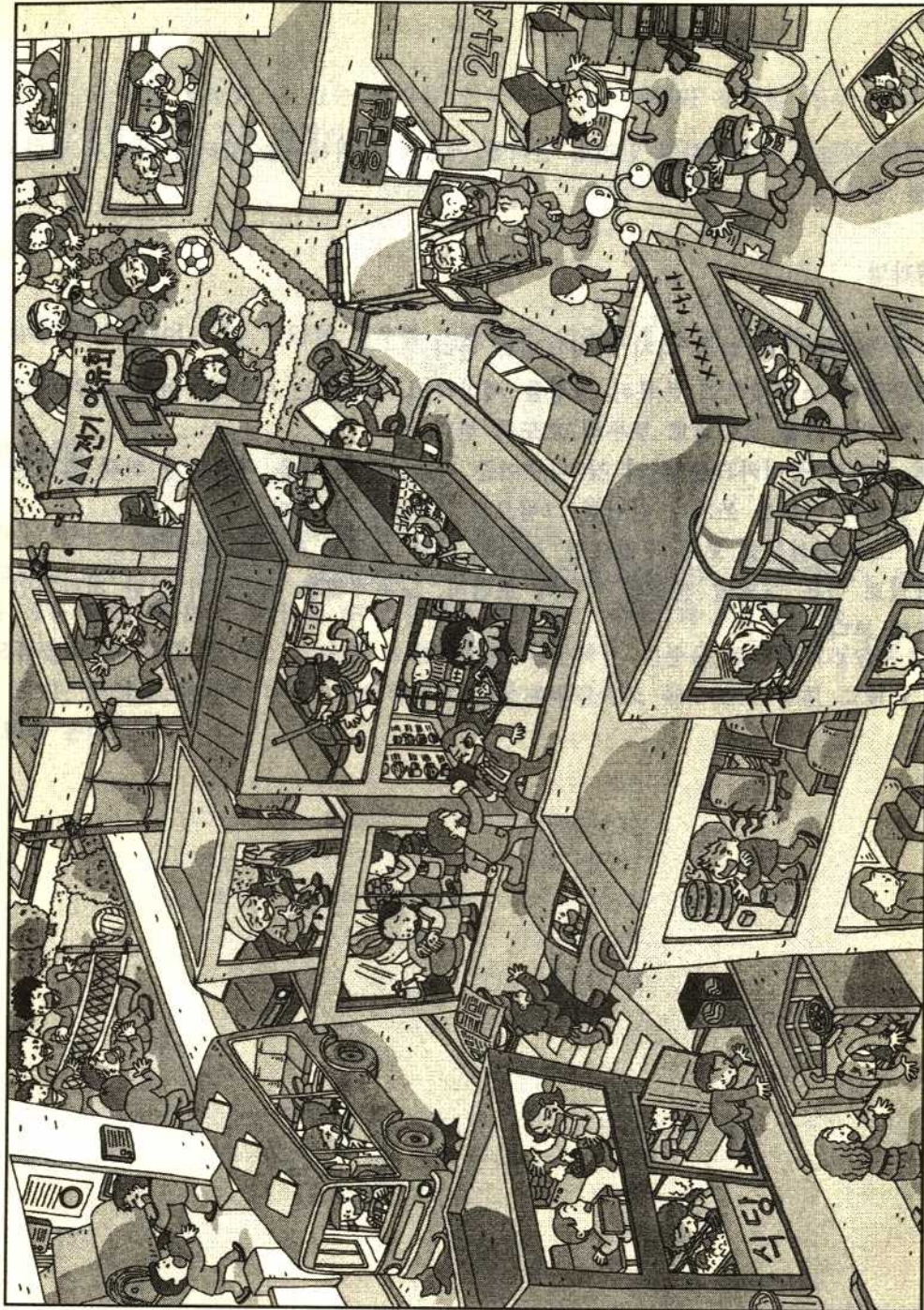
### ● 목표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안다.

### ● 진행방법

- 1) 앞에서 제시한 그림판을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 2) 그림판에서 노동재해로 분류된 상황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안전 도우미'를 선물할 필요가 있는지를 모둠별로 토론해 보도록 한다.
- 3) 작게 오려진 종이카드를 여러 장 나누어준 다음, 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나 장비의 이름을 쓰거나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한다.
- 4) '안전 도우미' 선물을 모두 꾸렸으면, 각각의 상황 옆에다 카드를 붙인다.
- 5) 모둠별로 나온 상황별 선물을 비교해 보면서, 노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토론해 본다.





[참고자료]

산업재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일을 하다 보면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생기는 사고나 질병을 '업무상 재해' 혹은 '산업재해'라고 부릅니다. 산업재해는 사용자가 안전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위험한 기계나 위험 물질의 사용이 많아지고 노동 강도가 심해지면서 산업재해는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아주 명백하게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유리창을 닦거나 배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건물을 짓다 추락하거나 기계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산업재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동자에게 질병이 생긴 경우 과연 이 질병이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생활 습관이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40대 노동자가 위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노동자는 젊은 나이부터 쫓기듯이 살아왔고 아침밥도 거르고 밤늦은 시간까지 회사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늘 속이 쓰렸지만 병원에 잠시 들를 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일을 해오다 결국 위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암에 걸린 이유가 업무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아직까지 넓지 않고 판단 기준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재해 노동자와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산업재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노동자들에게 발병하는 대다수의 질병은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과중한 노동 강도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아픈 것도 억울한데 치료는 물론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가난한 집안에 병자가 생기면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 얘기도 있듯이, 의료비 부담이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내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산업재해의 인정 범위가 최대한 넓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도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노동자가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사용자는 여러 가지 변명을 둘러대거나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될 수 있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내야 할 보험료도 올라가고, 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용자들의 속셈에 걸려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노동자들이 현재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알쏭달쏭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 내가 잘못해서 다쳤는데도 산업재해인가요?

☞ 노동자에게 잘못(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다친 경우라면, 당연히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장의 지시로 컴퓨터를 옮기다가 실수로 컴퓨터를 떨어뜨려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다고 합시다. 물론 노동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지만 PC방 업무를 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쉬는 시간에 다쳐도 산업재해인가요?

☞ 쉬는 시간 화장실을 갔다가 바닥에 미끄러졌거나 점심시간에 회사 계단을 내려가다 걸려 넘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작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화장실 바닥이나 계단에 물이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았거나 하는 이유로 다쳤다면 말이지요. 반면 만약 동료끼리 장난을 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다치는 경우만 산업재해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밖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사장 심부름으로 은행에 다녀오다 사고가 난 경우, 출장을 갔다 사고가 난 경우는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 회사 사람들이랑 놀다가 다쳐도 산업재해인가요?

☞ 놀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발목을 삐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겠지요. 만약 동료들 몇 명에서 마음이 맞아 체육대회를 연 게 아니라 회사에서 단합대회 명목으로 모든 노동자의 필참을 요구한 경우라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명백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겠지요.

## 성희롱이 뭐야?

● 목표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진행방법

1)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된 직장내 성희롱의 기본 개념을 제시한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 누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노동자가

◆ 어떻게 :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업무 변동 등 고용상의 업무 변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2) 이 개념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뽑아 보도록 한다.

3) 각 모듈마다 논쟁적인 성희롱 사례가 담긴 한 컷 짜리 만화를 나눠준 다음, 이 사례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도록 한다.

4) 토론이 끝나면, 모듈별 토론 결과를 발표한다. 진행자는 칠판 위에 '성희롱이다', '성희롱이 아니다' 칸을 만들어 놓은 다음, 토론 결과에 따라 각 사례 만화를 분리해서 붙인다.

5) 이번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나온 성희롱 예시 유형을 제시한 뒤, 모듈별 토론 결과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칸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으면 사례 만화를 옮겨 붙인다.

6) 외에도 어떤 것들이 직장내 성희롱의 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과 예시(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2조) ◆

성희롱 유형	성적 언어나 행동의 예시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시각적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의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기타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 성과 관련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만화]





## 평등의 눈으로 신문 읽기

### ● 목표

언론에 의한 폭력적, 반노동자적, 불평등한 관점을 확인하고, 평등한 눈으로 세상읽기를 연습한다.

### ● 준비물

신문 여러장, 색연필(1인당 1개)

### ● 진행방법

- 1) 모둠별로 신문 한 장과 색연필을 나누어 준다.
- 2) 5 분 동안 말없이 신문에 적힌 기사나 광고중 폭력적이거나, 성차별적이거나, 반노동자적인 내용이나 표현에 표시를 한다.
- 3) 자신이 표시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모둠에서 의견을 교환한다.
- 4) 표시한 부분을 다르게 표현해서 기사나 광고를 다시 작성한다.
- 5) 전체 모둠에서 1인이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의견을 들어본다.





## 인권의 실루엣 - 차이와 노동

### ● 목표

노동인권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각자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발견한다.

### ● 진행 방법

- 1) 모둠별로 커다란 전지 한 장을 나눠주고, 다양한 차이를 지닌 노동자가 적힌 종이쪽지를 뽑게 한다. 쪽지에는 여성, 노인, 알바 청소년, 지체장애인, 이주노동자, 현장실습생, 비정규직이 적혀 있다.
- 2) 모둠이 뽑은 쪽지에 적힌 노동자의 전신 실루엣을 전지에 그린다.
- 3)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본 다음, 관련된 신체 부위와 연결해서 권리의 이름을 적어본다.
- 4) 모둠별 작업이 끝나면 작업 결과를 발표한다.
- 5)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차이에 기반하여 특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 인권교육의 개념과 원칙; 노동인권교육, 이렇게 하자!1)

- 윤성봉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1. 인권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 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중에서

그렇습니다. 인권교육이 그 자체로서 권리이자 인권의 주춧돌인 이유는 교육을 통해 인권을 알고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은 인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교육은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인권을 행사할 줄 알며 인권을 억압하는 현실에 도전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단지 권리의 목록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인권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감수성과 태도를 기르며, 인권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권을 배울 때 인권의 가치는 학습자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다음의 3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인권교육일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3요소란 바로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지식과 앎),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태도),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행동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 2. 노동인권교육의 구성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과정에 놓인 사람들의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주제로 한 구체적인 인권교육의 한 분야입니다. 노동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노동기본권이라는 기존의 개념이 주로 노동할 권리와 노동3권만을 가리키는 좁은 개념인 반면, 노동인권은 노동기본권은 물론이고 노동기준, 노동자 프라이버시, 차별, 건강 등의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주제와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다르겠지만 노동인권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의 원칙, 곧 인권교육의 3요소가 고루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교육은 인권교육이 아니게 될 뿐만 아니라 애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과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노동자의 인권 현실에 공

1)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사람생각(2005)



감할 수 있는 감수성과 노동자의 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태도, 나아가 인권이 존중되는 노동과정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은 노동인권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노동의 가치 △국제인권기준, 국제노동기준, 국내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의 목록과 내용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역사와 주요 문서 △노동인권 확보를 위해 투쟁했던 인물과 주요 운동 △구조조정,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감시 등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그 파급적 결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안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물과 단체, 기관 등에 관한 지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을 위한 교육’은 노동과정을 인권의 기준으로 재구성하고 노동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노동자의 고통과 의견에 귀기울이는 능력 △노동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질서나 관계, 구조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 △노동인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존하는 인권보장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노동자들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을 인식하고 존중 속에서 연대할 수 있는 능력 △비폭력적,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등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을 조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인권교육 역시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폭력과 억압, 지시와 강제가 지배하는 교육과정은 폭력과 억압, 지시와 강제가 지배하는 노동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결코 인권의 존엄성과 권리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없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노동과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체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경청받아야 하며, 학습자들의 참여와 기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서로의 차이가 존중되고 문제를 긍정하고 비폭력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 3. 노동인권교육의 방법론

인권교육에서 가장 큰 교육적 자원은 바로 학습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느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의 생명은 학습자의 경험, 느낌과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역동적인 참여의 과정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교육의 과정을 통해 참여의 기쁨을 알고 참여능력을 기르게 된 학습자는 결국 자신의 삶과 그 삶이 구성되고 있는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동인권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에서의 역동적 참여의 경험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권한과 참여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일방향적·지시적·권위적 교육이 아닌 경험적, 활동중심적, 참여적, 변증법

적, 분석적, 문제제기식 교육의 원칙 하에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창조·재구성되는 지식, 쌍방향적 의사소통, 학습자의 역동적 참여 보장, 지시자나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지식의 재창조 과정에서의 촉진자·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의 기회 부여,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한 자기학습의 기회 보장 등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론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의 과정에서 교사가 지켜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자가 그 주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를 거라고 가정하지 말라.
- 너무 전문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라.
- 학습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 학습자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고 교육활동을 구성할 때 이를 반영하라.
- 학습자 모두가 골고루 토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 학습자가 활동과정에 대한 인상, 교육활동을 통해 얻어낸 통찰을 다시 교사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라.
- 학습자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전달하라.
-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라. 교사가 이야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습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화하라.
- 학습자와 논쟁을 벌이기보다 그들의 주장에 도전하는 문제제기식 질문을 던져라. 학습자를 설득할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생각해볼 점을 제시하라.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구성될 수 있습니다. ①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감능력을 기르기 위한 글, 그림 읽기 혹은 만들기 ② 사진, 시사만화, 그림 등의 이미지나 도표 해석 ③ 놀이 ④ 애니메이션·영화 등 시청각자료의 활용 ⑤ 사례연구 ⑥ 체험 ⑦ 실제 상황의 재현(시뮬레이션) ⑧ 역할놀이·참여연극 ⑨ 모의재판 ⑩ 프로젝트 ⑪ 기념일 행사나 캠페인 기획 ⑫ 현장탐방 또는 현지답사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해보는 여러 활동 프로그램들은 그 구체적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 ● 목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안다.

### ● 진행방법

- 1) 먼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상황카드를 제시한다.
- 2) 모둠별로 상황카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잘못된 점을 찾아내 발표해 본다.
- 3) 발표가 끝나면 상징그림과 짝막한 노동기준을 담은 '권리카드'를 나누어 준다. 상황카드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카드를 찾아내 서로 짝을 지어본다.

■ 상황카드

"알급님이 되어 돈을 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날 또 일시킨다면서 부모님을 직접 모셔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어르바 이르하는 거 모르시는데 말이예요."

■ 권리카드

**내가 번 돈은 내 손으로!**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한다. 정산년도 자기 손으로 임금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남아서 일을 하면 돈을 더 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개까지 남아서 일해도 똑같이 받아요."

**더 일하면 50% UP!**  
정해진 시간을 넘어 더 일을 시키는 경우라면 50%를 더 계산해서 줘야 한다.

"일요일에는 일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친파해서 바쁘니까 나오세요.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었는데 안 나오면 골이러면서 막 나오라는 거예요."

**강제노동은 안돼!**  
휴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급노동을 시킬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하다 제가 잠깐 멍실하는 바람에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사장님은 제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알아서 치료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사용자 책임!**  
일하던 도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다면 비록 노동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 끝나고 전보장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자야하는 돈만 돌려 달라고 해요."

**임금은 손대면 안돼!**  
이런 경우에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줘야 한다. 만약 노동자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 끝나고 나면 밤 10시인데, 일찍이하고 청소까지 하고 나면 40분은 후딱 가로 버스 를 걸러야 해서 직장하면서 청소해도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죠..."

**다가니 청리 시간도 업무시간!**  
일을 끝마치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일명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주는 날까지 매일 뛰어야 하고, 마칠만 기다려라, 마칠만... 반만 일해 주고 나머지는 나중 에 주는 경우도 있구요. 땀도 돈 조금도 내야 하고 윤곽도 사야 하는데 월급이 똑똑남들이 나랑 똑같아요."

**똑똑들 똑똑 임금도 안돼!**  
임금은 정기적인 날짜에 현재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책임만 면다고 그래 놓고서는 막 다들하는 거, 청소하 는 거, 배달 가는 거까지 막 시켜요."

**연속은 연속!**  
직을 연속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책임 위반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례

<p>"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밥도 못 먹어요. 밥 먹을 때도 눈치 보고 먹어야 하고..."</p>	 <p><b>이런 것도 권리!</b></p> <p>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쉴 수 있다. 4시간에 30분 이상, 휴식시간에 1시간 이상 일하는 도중에 쉬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p>	<p>"성당에서 일했는데 시간당 2000원씩 줘요. 일도 일든데 아무리 생각해도 2000원은 너무 적다 싶었어요."</p>	 <p><b>임금에도 최저선이 있다!</b></p> <p>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받으면, 직책을 받아낼 수 없다.</p>
<p>"몇 시간씩 서서 음식 주문받으면 다리가 뻠뻠 부어요. 손님 없을 때 앉아 있고 싶어도 앉을 때도 없어요."</p>	 <p><b>예상도 의무!</b></p> <p>사용자는 적절한 작업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p>	<p>"제가 일해 생리통이 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생리를 때문에 못 나간다고 얘기하다가 좀 뭉개서 아픈 게 숨겨지고 일해요."</p>	 <p><b>생리휴가는 당연한 권리!</b></p> <p>여성노동자는 해당 직종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p>
<p>"여름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려고 열거분요. 근데 사장님이 하는 날을 안 배워서 여름 내내 말 걸릴 줄이면서 일했어요."</p>	 <p><b>잠시 떠날 수 있다!</b></p> <p>노동자는 일년에 며칠간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기간 동안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p>		

### 유형1.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와 전교조 지회가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 실시(주로 서울 지역에서 실시) 사례

#### 사례1 관악청소년인권네트워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안내

#### 1. 상

- 민주노동당, 전교조 관동지회가 주축이 되며, 지역단체가 결합하는 청소년 노동교육 사업 (주최 : 관악 청소년인권 네트워크)
- 전교조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노동교육'을 초보적으로 모색하고 확대해가는 계기 마련
- 주 대상을 아르바이트 학생,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하되, 고1, 고2, 중3도 가능하면 포함하여, 아르바이트를 중심 주제로 노동인권교육 시행
- 교육 장소를 이원화하여, 학내 프로그램과 학외 프로그램을 분리 병행 진행.
- 수능일 이후 수능결과 발표일 전까지를 중점 시행 기간으로 설정

#### 2. 배경과 의의

-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의 노동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 고3 예비사회인들에게 일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고, 청소년 노동을 중요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고자 한다. (고1, 고2, 중3도 가능)

#### 3. 학내 교육

- 1) 상 : 각 학교별로 수능 후 학내 프로그램 진행되는데, 이에 결합(현재 인현고 학내교육을 학교측에서 승인), 예산 필요시 학교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예산 부분은 사업 실무자와 사전 협의 필요).
- 2) 일시: 2004년 12월 ( )일 오전 9~11시
- 3) 주최: 관악 청소년인권 네트워크(산하에 전교조, 민주노동당, 지역단체...)
- 4) 강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윤성봉: 노무사, 민주노동당 노동정책연구원 -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 담당 강사
- 5) 교육 내용
  - 시청각 자료 관람 (30분)
  - 강연 (1시간)
    - ① 노동 가능 연령 ② 근로계약 ③ 임금체불 ④ 재해보상 ⑤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⑥ 폭언폭행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일을 그만둘 자유 ⑨ 해고의 금지 ⑩ 퇴직금 등 노동인권 전반의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예정
- 6) 추진할 학교는 실무자와 구체적인 사항 협의 필요(일단 송재혁에게 연락 바래요 016-223-9067)



4. 학의 교육

- 1) 일시, 장소 : 11/20(토), 11/27(토) 14:00-17:00 (2단계 교육과정), 관악도서관(관악산입구) 5층 대강의실
- 2) 대상 : 고등학교 1, 2, 3학년, 중3
- 3) 홍보 : ① 11/4(목) 분회장총회에서 사업 설명 ② 11/13(토) 알까 행사장에서 학생회 학생들 중심으로 홍보 ③ 전교조 분회를 통해 홍보(포스터 부착, 안내지 배포) ④ 사업 실무자들이 하교시 학교 앞에서 홍보지로 홍보
- 4) 타이틀 : '알바 모여라!' (일하는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 이야기)

유형2.

전교조 지부나 지회가 참실마당의 한 주제로 실시

**사례2 전교조경기지부 고양 중등지회 참실대회**

- 1) 대회명 : 참교육실천대회
- 2) 주 최 : 전교조 경기지부 고양 중등지회
- 3) 장 소 : 백마중학교 강당 및 각 교실
- 4) 일 시 : 2005년 11월 17일(목) 18:00 ~ 21:00
- 5) 주 제 : '나누고 함께하는 즐거운 교육실천'
- 6) 발표회 일정

1부 : 전체 마당 (18:00 ~ 19:00 백마중 강당)			
2부 : 분과 마당 (19:00 ~ 20:30~21시까지, 각 분과교실)			
영역	주제	진행자	발표내용
주제 영역	노동인권	하인호(실업교육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함께 하실래요?
		박현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강의, 동그라미의 비밀)

- 7) 평가 :
  - 참가인원 : 10여명 참석(지회에서 조직한 인원 포함)

**사례3 전교조 충남지부 참실대회**

- 1) 대회명 :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 2) 주 최 : 전교조 충남지부
- 3) 장 소 : 천안 나사렛대학교
- 4) 일 시 : 2005년 11월 19(토) 14:30 ~ 20:30
- 5) 주 제 : '충남 교육문화, 더불어 새롭게  
신명나게'
- 6) 발표회 일정



1부 : 전체 마당			
2부 : 분과 마당			
영역	주제	진행자	발표내용
주제 영역	노동/실업 교육	유무형(실업교육위원회)	노동교육 실천사례
		하인호(실업교육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함께 하실래요?

**사례4 전교조서울지부 공립중등남부지회 참교육 실천한마당**

- 1) 대회명 : 참교육실천 한마당
- 2) 주 최 :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등지회
- 3) 장 소 : 구로중학교
- 4) 일 시 : 2006. 5. 3(수) 17시 ~ 20시 : 강좌1, 강좌 2  
2006. 5.10(수) 17시 ~ 20시 : 강좌3
- 5) 주 제 : '주5일제와 학교, 그리고 행복한 교사되기'
- 6) 발표회 일정

1부 : 전체강좌 (2006. 4. 26)		
2부 : 주제별연수 (2006. 5. 3, 5. 10)		
주제	진행자	발표내용
노동인권교육	5. 3(수) 하인호(실업교육위원회)	노동인권교육, 이렇게 하자! (인권교육의 개념과 원칙)
	박현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1. 청소년 노동의 현실 (불안정노동과 청소년노동) 2. 활동프로그램 실습 - 동그라미의 비밀 : 노동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짜보기 :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만들기 등
5. 10(수)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윤성봉(민주노동당), 하인호(하인호)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 -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 노동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체험 -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실습

유형3.

인천지역 사례 - 우리지역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우리가 한다(인천 노동인권교육네트워크 준비중)

**사례5 천주교 노동사목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 취지
- 지난해 국회에서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고3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 실태 조사를 기자 회견으로 발표한 후 청소년들은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 전 연령층이 정규 교과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우지 않음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의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 : 단순히 노동법 지식 내용을 외우게 해서 습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배워가도록 이끄는 참여 프로그램 형식의 교육

### 1. 동그라미의 비밀

방법

-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교사, 농민, 의사, 개인택시기사, 아나운서, 동방신기 등등
- 20가지의 직종을 나누어 주고 노동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는 프로그램.
- 동그라미 안에 노동자가 들어가고 밖에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동그라미를 밟고 있도록 한다.

내용

-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자인 경우는 업무의 지시를 받는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는지 등을 설명해준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도록하는 것과 노동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와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함을 일깨워준다.

예>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노동자, 노동조합이 있으며 구단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동방신기-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다 노동자 등등

### 2. 생활임금이란?

방법 :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얼마정도의 돈이 지출되는가를 청소년들이 직접 금액을 적고 그 총액이 얼마인지 알게 한다. 식비, 교통비, 집세, 경조사, 교육비, 용돈 등등

내용 : 4인가족 표준 생계비에 대한 설명과 현행 최저임금 시간급 3100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아르바이트로 3100원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 3. 노동인권 골든 벨을 울려라

20개 정도의 노동인권 범주에서 시간관계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 극히 일부분만 진행하였고, 주된 참가자는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의 눈높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모두 3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 사례6 인천 노동자교육기관 청소년 노동인권 지도자 워크숍

- 1) 제목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도자 워크숍
- 2) 주관 : 노동자교육기관, (사)내일 청소년생활문화마당
- 3) 장 소 : 노동자교육기관 3층 교육실
- 4) 일 시 : 2006년 4월 1일 (토)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4월 2일 (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 5) 대상 : 단체 상근자와 현직 중고교 교사 등 25명  
(이들 중 일부는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 기획단 및 강사로 활동)
- 6) 강사 : 1일 : 하인호, 문혜진, 김정미, 윤성봉  
2일 : 하인호, 문혜진, 김정미, 배경내
- 7) 프로그램 및 준비물

워크숍 일정			
첫째날 (1일)	2:00	등록	진행
	2:30	몸 풀기 마음 열기	배경내
	4:00	활동 1. 동그라미의 비밀 : 노동자란?	하인호
	4:30	활동 2. 인권의 실루엣 : 차이와 노동	문혜진
	6:00	저녁식사	
	7:00	활동 3. 권리카드를 찾아라 (상황극)	김정미
	8:00	활동 4. 숨은 그림 찾기 & 일터를 바꾸는 선물	배경내
9:30	친교의 시간 & 뒷풀이		
둘째날 (2일)	10:00	활동 5. No Cut ! : 모의 노동위원회	윤성봉
	12:00	활동 6.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김정미
	1:00	점심식사	
	2:00	활동 7. 단결권 보드게임	문혜진
	3:30	정리강연 3 :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	하인호
	4:00	내 손으로 짜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시연 & 발표	박현진
	6:30	평가와 격려 & 뒷풀이	



프로그램	준비물	담당
몸풀기, 마음열기		사랑방
동그라미의 비밀	직업카드(참여사용목걸이1부, 진행사용1부), 원표시할 노끈	
인권의 실루엣	전지, 그림도구, 각 노동자가 적힌 쪽지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상황카드, 권리카드	
숨은그림찾기&일터를바꾸는산물	산업재해 그림판, 분할된 그림판, 전지, 그림도구	
노컷(No Cut)-모의노동위원회	사례프린트물, A4(변론서작성용), 필기도구, 판례내용	
성희롱없는일터만들기	성희롱관련만화컷(참여사용1부, 진행사용1부)	
단결권보드게임	놀이판, 놀이말6개, 주사위2개, 질문카드, 대응카드, 점수카드	사랑방
내손으로짜는 노동인권 교육프로그램시연 & 발표	전지, 팬매직	
전체	풍선 2개, 전지,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칼라펜, 크레파스 등), 필기구, A4용지10장, 명찰, 식사 및 다과, 음악(가능하면) 주최측에 준비부탁 드립니다	

**사례7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젝트**

2006 지원사업 계획서

- 신청사업명 : 청소년 근로인권교육 프로젝트 "내일은 맑음"
- 사업목적
  - 청소년 근로인권교육 체계 배포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근로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 청소년의 근로권의 보장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이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청소년근로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 사업추진기간 : 2006년 6 월 10 일 ~ 2006년 11 월 10 일
- 사업추진방법
  - (1) 근로인권교육 지도자 워크샵
  - (2) 청소년 근로인권교육 교재 발간
  - (3) 청소년근로 인권교육
    - 사업내용
      - 취지
        - 근로인권에 대한 침해 예방과 권익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 다양한 체험활동과 참여수업을 통해 지루한 전달식 교육이 아닌 활동교육
        - 이론적으로 노동법에 관한 지식을 전달이 아닌 근로인권이 침해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 일시 : 7월 10일 ~ 9월 30일
      - 내용 : CA연계교육, 실업계고 현장실습 예비교육, 공개강좌

※ 교육 프로그램 예시 - 고등학교 CA 연계 수업(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시간	프로그램	내용
30분	난장 트기 및 몸풀기 놀이	· 여러 직업이 적힌 카드를 당사자가 볼 수 없게 각자 등에 붙인다. · 교실안을 자유롭게 다니며 만나지는 사람에게 서로의 직업에 대한 힌트를 준다. · 힌트를 통해 자신의 직업을 맞추고 결과를 발표한다.
40분	모둠별 활동 근로자 개념이해 '동그라미의 비밀'	· 커다란 원이 그려진 전지를 모둠별 나눈다. · 몸풀기 놀이에서 활용한 직업 카드를 가지고, '근로자'인 경우는 원의 안쪽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원의 바깥에 붙이게 한다. · 분류 작업이 끝나면 결과를 발표한다. 원의 안과 밖을 구분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 한다. · 강사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듣고 다시 분류한다.
40분	대상별 교육	· 근로기준법 바로 알기. · 당당하게 쟁기자, 근로계약서! · 출구를 찾아서 (문제 발생시 효과적 대응방안/도움받을 수 있는 곳 안내 등)

**사례8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워크숍**



**"노동인권교육 아직 모르시나요?"**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 **연재** : 2006년 9월 22일(금) 오후 6시~10시,  
23일(토) 오전9시~오후 4시 (2일간)

★ **어디서** : 전교조 인천지부 대회의실

★ **참가 대상** : 중, 고등학교 교사

★ **참가 인원** : 총 20~30명(선착순)

★ **참가비** : 20,000원  
(농협 151-12-014597, 고재연)

★ **신청** : 인천지부 홈페이지 '2006 참교육 연수한마당' 신청게시판에 신청

★ **문의** : 인천지부 참실 이윤구(019-9101-949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일정			
첫째날 (22일)	18:00	등록	
	18:30	몸 풀기 마음 열기	문혜진
	19:00	활동 1 인권의 실루엣 : 차이와 노동	하인호
	20:20	활동 2 동그라미의 비밀 ; 노동자란 ?	이수정
	21:30	정리강연 1 ; 노동자의 개념, 노동법 체계, 비차별 원칙	이수정
	22:00	친교의 시간 & 뒷풀이	
둘째날 (23일)	09:00	활동 3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	이지환
	10:30	활동 4 숨은 그림 찾기 : 일터를 바꾸는 선물	김정미
	11:30	정리강연 2 :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이수정
	12:00	점심	
	13:00	활동 5 No Cut ! : 모의 노동위원회	김정미
	14:30	내손으로 짜는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시연 & 발표	하인호
	15:30	노동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	하인호
	16:00	평가와 격려 & 뒷풀이	
	16:30	이별	

사례9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워크숍



“노동인권교육 아직도 모르시나요?”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노동인권!!! 노동에 관하여서는 관심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머릿속에 뱅뱅도는 노동인권개념을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런데, 혹시~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아이들에게 노동인권을 좀 더 쉽게 가르쳐 줄 순 없을까? 일하는 아이들은 늘어만 가는데, 교사인 나는 이렇게 속수무책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임금 때이고 부당한 일을 겪고 돌아온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막막하던 걸? 제대로 된 교육 한번 없이 현장실습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아이들을 노동현장에 내보내도 괜찮은 걸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어른이 된다고 갑자기 불쑥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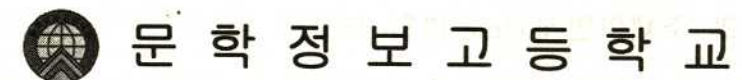
특히 이번에 진행할 강사님들은 지난해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를 출판하는데 참여했던 분들로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한 워크숍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 우리학교에서 진행한 워크숍에 총출동합니다. 지금까지 받아보신 어떠한 연수 보다 학생들 지도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 정	
첫째날 (10일)	13:30	몸 풀기 마음 열기	
	14:00	활동 1 동그라미의 비밀 ; 노동자란 ?	
	15:20	활동 2 인권의 실루엣 : 차이와 노동	
	16:30	정리강연 1 ; 노동자의 개념, 노동법 체계, 비차별원칙	
	17:00	친교의 시간 & 뒷풀이	
둘째날 (11일)	13:00	활동 3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	
	14:30	활동 4 숨은 그림 찾기 : 일터를 바꾸는 선물	
	16:00	정리강연 2 :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16:30	활동 5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17:30	평가와 격려	

◆ 목적 : 노동인권을 주제로 청소년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각 현장의 정보를 나누며, 노동인권교육 기법을 익혀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연 계 : 10월 10일(화) ~ 10월 11일(수)  
 ◆ 어디서 : 그래픽디자인실  
 ◆ 참가 대상 : 선착순 20명  
 ◆ 워크숍 장소 : 4층 그래픽디자인실  
 ◆ 신청 : 10월 2일까지 실업부 장애자 선생님께  
 ◆ 강사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강사단  
 10일 : 이수정 노무사, 문혜진 활동가  
 11일 : 윤성봉 노무사, 박현진 활동가

문학정보고등학교 노동인권워크숍 진행팀

사례10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워크숍



수신자 : 내부결재

(경유)

제 목 : 실업계 고3학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추진 계획

우리학교 교육계획 및 성과운영계획에 의거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붙임자료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06. 11. 30(목) ~ 12. 8(금)

나. 장 소 : 그래픽디자인실

다. 강 사 : 하인호, 장애자, 차삼순, 김남영, 조부경

붙 임 : 실업계 고3을 위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추진 계획 1부. 끝.

문학정보고등학교장



담당자            실업부장            교감            학교장  
 협조자 3학년 부장    웹디자인부장    교무부장    행정실장  
 시행 문학정보고 - (2006. 11.24) 접수 - ( 2006. . . )  
 우 : 402-070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94-4번지 / http://munhak.hs.kr  
 전화 (032)428-4215 전송 (032)428-4289/ chamho@hanmail.net / 공개

실업계 고3학생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 계획

실업부

1. 목 적

- 노동의 의미를 깨닫고 노동자에 대한 협소하고 편향적인 이해의 벽을 깬다.
- 노동인권의 주체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 직업의 이름은 다르지만 노동자라는 큰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도록 한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 노동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방 침

- 노동인권에 대한 침해 예방과 권익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지루한 전달식 교육이 아닌 활동교육
- 이론적으로 노동법에 관한 지식을 전달이 아닌 근로인권이 침해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3. 개요 및 추진 일정

- 제 목 : 실업계 고3학생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장 소 : 그래픽디자인실(실습동 4층)
- 대 상 : 3학년 전체
- 일 시 및 시간 : 11월 30일(목) ~ 12월 8일(금)

4.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	진행교사
활동1. 몸풀기·마음열기(OX퀴즈)	20분	하인호 장애자 김남영 차삼순 조부경
활동2. 동그라미의 비밀 : 노동자란?	30분	
쉬는 시간	10분	
활동3.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	40분	
정리하기. 노동자의 개념, 노동법 체계,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10분	
질의 및 평가		

○ 준비

프 로 그 램	준 비 물	담 당
몸풀기, 마음열기	답안지, 필기도구	장애자
동그라미의 비밀	직업카드, 원 표시할 노끈	하인호 장애자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상황카드, 권리카드	
정리하기	정리 강연 자료	하인호



5. 일 정

일시	시간	학반	담당교사
11월 30일(목)	5·6교시	3 - 4	하인호, 김남영, 장애자
12월 1일(금)	5·6교시	3 - 1	하인호, 장애자
12월 4일(월)	1·2교시	3 - 10	장애자, 차삼순
12월 6일(수)	1·2교시	3 - 5	김남영, 장애자
	3·4교시	3 - 2	장애자
	6·7교시	3 - 3	장애자
12월 7일(목)	1·2교시	3 - 7	하인호, 차삼순, 장애자②
12월 8일(금)	1·2교시	3 - 9	장애자, 차삼순
	3·4교시	3 - 6	김남영, 장애자④
	6·7교시	3 - 8	장애자, 차삼순⑥, 조부경⑦

6. 예산

상품 OX퀴즈 : 250원 \* 100개 = 25,000원  
 상황극 : 3000원 \* 30개 = 90,000원  
 계 : 115,000원



실업계 고3 학생을 위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일정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시간
	활동1. 몸풀기·마음열기(OX퀴즈)	20분
	활동2. 동그라미의 비밀 : 노동자란?	30분
	쉬는 시간	10분
	활동3.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	40분
	정리하기. 노동자의 개념, 노동법 체계,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10분

사례11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조합 자녀 노동인권교육

■ 2007년 대전지역 제1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일시 : 2007년 2월 10일 14시~17시
- 장소 : 대전 대덕구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 교육장
- 참여인원 : 청소년(중3~고3) 및 대학생 19명, 실무팀 6명, 자원활동가2명(민주노동당 광역시당 및 일반노조)
- 참가대상 : 대전지역 청소년(실업고학생, 민주노총 조합원 자녀 및 민주노동당 당원자녀, 청소년단체 및 시설을 중심으로 조직)
- 프로그램

1차	2차	등록
----	----	----



2:00~2:30	몸풀기 마음열기
2:30~3:00	1강 : 동그라미의 비밀/ 노동자다, 아니다 목표 : 노동인권의 주체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 직업의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노동자라는 큰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함을 이해하도록 함
3:00~3:10	휴식
3:10~4:30	2강 :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 목표 :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안다.
4:40~5:30	3강 : 성희롱이 뭐야? 목표 :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5:30~6:00	평가 및 정리의 시간
6:00~7:00	저녁식사 및 뒤풀이

**유형4**

국회의원, 실업계고 노동인권 하루 교사되다.

**사례 12** 국회의원, 실업계고 노동인권 하루 교사되다.

국회의원, 실업계고등학교 방문 사업 기획서

작성 : 사업기획팀(박명혜, 윤성봉, 하인호)

1. **가제** : 국회의원, 실업계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사 되다
2. **주최** :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대표 단병호)  
**주관** : 전교조(실업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사업기획팀** ; 박명혜(단병호의원실 보좌관), 윤성봉(당 정책연구원, 네트워크), 하인호(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네트워크)

●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단병호(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써, 2004년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위해 결성되었고, 2해 연속 우수연구모임으로 선정됨. 정회원 12명, 준회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음.(정회원 노 단병호 심상정 권영길 노회찬 최순영 현애자 천영세 이영순 한 배 일도 박계동 이재오 우: 유기홍)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2004년 1월에 구성했고 지금까지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왔음.  
 <보고서 및 책 발간 사업>  
 '04. 국회 법사위 용역 보고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발간  
 '05. 사람생각,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  
 '05.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자료집" 발간  
 <연수 및 교육>  
 '04.8 청소년노동인권 교육 워크샵 ; 교사, 민주노동당 지역위, 인권활동가 40여명  
 '04-'05. 전교조 참실대회, 전교조 강원지부, 서울 남부지부 등 교사 연수, 인천 노동자 교육기관 등 활동가 및 교사 연수  
 <청소년 교육>  
 전라도 삼례공고, 인현고 등 각 학교, 각종 청소년 수련원, 희망대 등 청소년 단체, 관악지역 청소년 등 각 지역 교육  
 <실업계고 현장실습 실태조사> '05.8-12

3. **취지** : 국회의원이 직접 실업계고등학생들을 만나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예비노동자로서 바라는 점과 개선 방안을 듣고 함께 대화하는 자리

○ **주목! 실업계고등학교 예비노동자**

-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노동자 의식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의 재생산"이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곧바로 노동자가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음. (심지어 교육 문제 해결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현장실습에서의 인권유린과 비정규직으로의 노동시장 진입, 학교에서의 전무한 노동인권 교육, 꿈과 희망의 상실이라는 다차원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태임.
-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의 진보, 노동운동의 발전,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집권 등을 위해서라도 실업계고등학교 문제는 시급히 개입해야 할 주요 의제임. 특히 대다수 노동자 출신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은 실업계고등학교 예비노동자 문제를 새로운 의제로 부상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노동인권 교육의 돌파구 마련**

- 그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책 발간, 교사 및 활동가 양성, 학교 현장 및 지역에서의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다양한 실천들을 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지난 5월 1일 전교조에서 최초로 실시한 노동절 계기 수업 (교재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발간한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은 비록 전면적 실천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조그만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에서 국가인권위 지원사업으로 실시할 실업계고 노동인권교육(100회) 역시 노동인권 교육의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전히 전경련에서의 교과서 개입, 교육청에서 보이고 있는 편향적 인식과 잣대(강원교육청 사례 등), 교과서 및 교과 과정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일선 교사들은 다소 망설이는 상황임.
- 따라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노동인권 교육은 향후 학교 현장과 지역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확산 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예상됨.

○ **교과서 개입 및 교과 과정 개편의 계기 마련**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의 교육은 반 노동 교육이며, 교과서 및 교과 과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임.
- 전경련 등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과서 개입을 해오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음.



- 이번 사업은 향후 교과서 개입 및 교과 과정 개편, 각종 제도 개선,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사업 개요

○ 일시 ; 7월 3~ 14일 주간

○ 대상 학교

- 실업계 공립 고등학교 중 3~5개 학교(국가인권위 사업으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진행하는 학교 제외. 서울, 경기, 인천지역 40여개 교)

○ 사업 내용

▲ 설문조사(사업기획팀) ;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식실태, 알바, 실습생 등 노동경험에 대한 조사, 노동인권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조사 진행

▲ 교사들과의 간담회(진행; 전교조 실업위 교사)

▲ 대상학교 고3 고등학생 교육 및 대화(국회의원 및 보좌관+'네트워크' 1인)

▲ 책 기증("똑똑 노동인권 교육 하실래요?") 및 사진촬영

○ 후속 사업

- 당 차원의 지역별 노동인권 교육 실시

- 지역별 간담회('네트워크'에서 현장실습 등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지역별 간담회 시작) 통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설문 결과 분석 및 국감 활용(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방안,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등 제도개선)

- 교과서 및 교과 과정 개편 개입 등

5. 교육 방식 ;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 담당 국회의원 및 네트워크 활동가가 결정되면 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방문일정표

	의원	시간	학교명	대상	실무팀
11(화)	단병호	10:00~12:00	충북전산기계공고	학생 60명 시청각실, 교사 10여명	박현진
	노회찬	10:00~12:00	서울북공고	학생 70여명 시청각실, 교사	윤성봉
	최순영	11:00~12:50	인천문학정보고	학생 60명 무용실 교사 10명	문혜진/ 이수정
	권영길	10:00~12:00	인천정보산업고	학생 각각 100명 대강당 교사20명	문혜진
	단병호				윤성봉
13(목)	현애자	13:00~15:00	충남청양여고	학생70명 시청각실 교사10명	배경내

진행계획

1. 학생 수업 (총 60분)

■ 여는 프로그램(10~15분) " 도전 골든벨! 지키자 노동인권!"

5~7문제를 내고 맞히면서 노동인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함. 재미있고 집중시킬 수 있게 재미있게 진행하며 정답자 선물증정(책). 진행 실무팀.

■ 의원 수업(20~30분) "나도 노동자, 서민 국회의원입니다"

앞서 진행한 여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이나 지식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가면 됨.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고, 사회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며 취업에 대한 환상이 크지 않아 노동자가 된다는 사실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음. 그로인해 진학을 하길 원하는 경향이 날로 짙어지고 있으며 취

업을 할 학생들도 노동자의식, 노동자적 권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취업 후 자신의 권리 찾기에 소극적임. 따라서 일일교사로 방문한 의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실업계학교 출신, 농업인출신, 진학한 대학에서 학생운동하면서 투옥된 사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 필요. 또한, 노동자에 대해 자랑스럽고 멋진 의식을 갖게 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함.

2. 학생들의 질문 및 의견 듣기(10여분)

노동자, 노동인권, 민주노동당, 노동조합 등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해 진솔하게 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3. 교사 간담회(30~40분)

■ 실업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문제점 등을 듣는 자리임. 교육담당 의원이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실업계교교의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답이나 논의는 어려울 듯 함. 따라서 미리 준비해 간 설문지 작성을 통해 사전 의견을 정리하게 하고, 주로 교사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함. 실무팀이 진행된 간담회를 기록하여 이후 정책반영에 활용할 예정임.

유형5

정부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시

사례1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인권 교육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지원사업>

실업계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지원사업 「실업계고등학생 노동인권교육」

○ 주 최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후 원 : 국가인권위원회

2. 사업 목적

○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로서 노동인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노동인권교육 내용

○ 교육 대상 및 인원제한 :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강의 1회당 참여할 수 있는 학생수는 한 학급(40명 이내)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두 학급(80명 이내)을 넘지 않도록 함.

○ 교육내용 :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학생들의 경험들을 직접 들어보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기본지식(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조건, 해고, 남녀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4대보험 등)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법이 보장하는 노동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소개하여줌.

○ 노동인권교육 실시기간

상반기 : 2006. 6. 1. ~ 2006. 7. 31.

하반기 : 2006. 9. 1. ~ 2006. 10. 30.

○ 교육시간 : 강의 1회당 1시간내외(50분 예정)

○ 교재 및 장소 :

- 각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시행기간 내에 일정한 날짜를 특정하여 참가신청할 경우, 특정일에 강사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직접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교재 및 강의비용은 무료.

3. 사업 시행 절차

○ 참가신청 대상 : 각 학교장 및 교사 개인

- 단위학교차원에서 학교장이 참가신청할 경우,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강의횟수 및 강의 1회당 참여 인원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학교차원에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활활동 기타 특정수업에 대한 재량권을 갖춘 교사가 개별적으로 참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 방법

-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구체적인 강의일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참가신청서 상의 분기별로 지정하여 주시면, 학내여건에 따라 원하시는 일자로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접수기간 : 2006. 5. 15. ~ 2006. 7. 15.

- 상반기 및 하반기 참여신청은 상반기에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 강사공급일정에 따라 참가학교선정과정을 거쳐 신청이후 1주일 내에 선정여부를 통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게 됩니다.
- 예산범위 안에서 교육횟수가 제한되므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지역 Tel) 02-834-2971~3 Fax) 02-834-2970  
경인지역 Tel) 032-422-0942 Fax) 032-422-0975

사례 14 광주비정규노동센터 제1회 실업계 고교 노동인권학교

2007 지원사업 계획서

I. 신청사업 : 「 제 1회 실업계 고교 노동인권학교 」

II. 사업목적

1. 예비노동자(비정규직 취업 가능성이 높음) 인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과 노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준비능력을 향상시킨다.

2. 실업계 교사들의 산업현장 및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 광주지역 내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기관(실업계 교사모임, 학부모 모임, 교육기관, 지역의 주요 기업체, 광주시) 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모색한다.

III. 사업추진기간 : 2007년 7월 10일(수) ~ 8월 3일(금)

IV. 사업추진방법

1. 노동인권교육 취지 및 학교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홍보 및 제안

1) 2006년의 교류를 바탕으로 실업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취지 및 기본계획안 마련

2) 리플렛 및 언론사 공익광고, 인터넷 웹진 발송을 통한 홍보

2. 참가 고교 선정 및 인원 모집

1) 07년에는 2~3개 고교를 집중 선정한다.

2) 교사 5~8명, 학생 50 ~ 60명 정도를 모집한다.

3. 노동인권학교 개설 및 운영

1) 1일 4시간, 3일 동안 총 6개의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교과는 ①노동법, ②현장체험, ③퀴즈 문답풀이 ④게임, ⑤조별 10분 상황극, ⑥연사초청공연 등을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4. 노동인권교육 평가 및 자료집 발간

- 1) 노동인권교육취지 및 운영프로그램 소개
- 2) 6개 교과 강의안 - 이후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적용
- 3) 피교육자들의 교육 진행 전반에 대한 평가

5. 자료집 배포 및 노동인권네트워크 구성



1) 자료집 배포를 통해 실업계 고교, 지역 내 경영자 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시구청등 관련 기관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린다.

2) 실업계 교사모임, 학부모 모임, 교육기관, 지역 내 주요 기업체, 광주시가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청소년 의 안정된 취업과 인권을 향상을 시킨다.

V. 세부추진계획(일정별, 추진단위별)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7월 9일 ~ 7월 24	○ 광주비정규직센터 1. 노동인권교육 취지 및 학교운영 기본계획에 대한 홍보 및 제안	○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한 학교운영 기본계획 작성 ○ 학교 개설 공간 확보 ○ 인터넷 웹진, 신문과 방송의 공익광고, 리플렛을 통한 홍보
7월 17일 ~ 7월 24	○ 광주비정규직센터 2. 참가 고교 선정 및 인원 모집	○ 참가대상 학교 선정 및 학생 모집 ○ 6개 교과 강의안 완료 및 강사 훈련
7월 25일 ~ 7월 27	○ 광주비정규직센터 3. 노동인권학교 개설 및 운영	○ 입학식- 어울리고 서로알기 ○ 매일 강의 준비 및 평가 보완 ○ 학생들의 참여 유지 및 지도 ○ 졸업식 - 소감발표
7월 28일 ~ 8월 3일	○ 광주비정규직센터 4. 노동인권교육 평가 및 자료집 발간	○ 센터, 강사,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평가 ○ 자료집 발간
8월 3일 ~ 지속화	○ 광주비정규직센터 5. 자료집 배포 및 노동인권네트워크 구성 (후속사업)	○ 자료집 배포 ○ 협력 네트워크 모색

VI. 기대효과

1. 민주적 자질과 성실성을 겸비한 산업일꾼 양성

1) 외환위기 계속되어 온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실업을 확대로 이어져 산업전체의 동력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2) 따라서 산업현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 노동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줄 아는 민주적 자질과 성실성을 갖는 예비노동자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2. 07년의 1회 학교를 성과적으로 마무리하여 그 모범을 향후 광주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작년 (06년)의 노동인권교육이 실업계교사와 노동전문단체와의 첫 교유였다면 올해(07년)의 노동인권학교는 예비노동자 당사자인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직접 교육함으로써 전체 실업계고교로 확대하는 기반이 될것이다.

3. 청소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1) 조사나 상담에 의하면 아직도 중소기업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산업재해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2) 따라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피고용주와 사용자 모두의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생산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VII.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4,040,000원 ( 100 %)
- 보조금 : 1,950,000원 ( 48.27 %)
- 자부담 : 2,090,000원 ( 52.73 %)
- 지출항목별(비목)집행계획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4,040,000원(100%)	
보 조 금	1,950,000원 (48.27%)	
평가자료집	1,250,000원(30.94%)	○ 2,500원( 50page 1권) × 500부 =1,250,000원
졸업기념품	400,000원 (9.9%)	○ 5,000원(1개) × 80명= 400,000원
장소대여비	300,000원 (7.43%)	○ 100,000(하루대여비)×3일 = 300,000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자 부 담	2,090,000원(52.73%)	
웹진홍보물	150,000원 (3.71%)	○ 전문기관 의뢰 150,000원
홍보리플렛	300,000원 (7.43%)	○ 600원(A3 1부) × 500 부 = 300,000원
인건비	1,200,000원 (29.71%)	○ 100,000원(1일) × 4(강사) × 3일 = 1,200,000원
강의교재	120,000원 (2.97%)	○ 1,500원(30p 1권) × 80부 = 120,000원
강의자재, 소품	200,000원 ( 4.9%)	○ 문구, 소품 200,000원
상장,상품	120,000원 ( 2.97%)	○ 2,000(상장) + 100,000(상품) = 120,000원

#### 유형5

#### ‘어린이 공부방’ 3년 매월1회 노동인권교육

사례15 평택시 청소년무료공부방 늘꿈터 노동인권교육사업

## 공 문

수신 :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발신 : 평택 청소년무료공부방 늘꿈터(교장 김선숙)  
내용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뢰

진보정치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부방은 저소득 중학생들을 위한 무료공부방으로 기본 학과과목 교육외에 <노동,인권,글쓰기,성교육,향토사>등 교양수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1학기(4월 -7월) 3회 정도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 운동본부에 교육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공부방은 3년간 이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학기 교육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다음 ■

- 교육일정(안)
  - 1회 - 4월 13일(금) 18:00 - 19:40 (\* 45분 수업 - 10분 휴식 - 45분 수업)  
\* 부득이할 경우 1회 수업일정 조정 가능(다만, 요일은 금요일)
  - 2회 : 5월 중 (1회차 교육 후 5주 후)
  - 3회 : 6월 말 (2회차 교육 후 5주 후)
- 교육내용(안)
  - 노동자는 누구인가? 노동의 의미는?
  - 청소년 노동(아르바이트 /실습등)과 노동법
  - 임금이란 무엇일까?
  - 모의 노사교섭 해보기
  - 노동조합이란?
  - 비정규직노동자는 누구일까요?
  - 다른 나라의 학교 노동교육 실태
  -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타나는 노동과 노동자, 노동조합(경총 교과서 비판) 등등
- 교육진행 방법 의견  
1회교육이 총 90분으로 45분 수업이 2번 연속있는 관계로 해설 45분, 참여형 교육 45분으로 하는 방안과 작은 주제 2가지를 수업시간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 4. 협조사항

- ① 중학생에게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안을 요청드립니다.(1회차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 ② 교육 강사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청/소/년/무/료/공/부/방 늘꿈터(교장 김선숙)

#### 유형6

####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 사례16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 1. 사업목표

- 예비노동자인 대학생들과 청년실업비정규문제의 심각성 공유
- 학생위원회와 학생회가 학내에서 청년실업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함.
- 신자유주의의 전진기지인 대학을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거점으로 전환시키고자 함.
-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전 노동의식을 높이고, 노동조합으로 안내함.
- 08년 상반기 교육투쟁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토대 마련
- 대학내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추진할 역량 마련

#### 2. 방식

##### ■ 간담회

- 학생회, 학생위원회, 청년단체 등의 간부들과의 간담회 진행
- 광주전남 학생진보캠프에서 4시간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함.

##### ■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특강으로 진행

- 2006년 9월 27일, 서울 경기대학교에서는 졸업준비위원회와 학생위원회가 학교당국과 협의하여 취업특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주제로 약 2시간정도의 강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함.

##### ■ 간부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 2월 덕성여대에서는 신입생 수련회를 가기전, 과반학생회 간부들이 수련회에 청년실업문제를 새내기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사전 교육시간을 갖음. 150여명의 반학생회 간부들이 교육 받음.

#### ■ 대학생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 - 강의 기획안

- 1) 1강(1시간) : 청년실업비정규문제의 심각성과 대학생의 역할
- 2) 휴식 : 10분
- 3) 2강(1시간 30분) : 대학생이 알아야할 노동인권(부제 : 직장생활에서의 기초 노동인권상식)
- 강원대 : 5월 28일 오후 5시
- 전북대 : 5월 29일 오후5시
- 원광대 : 5월 30일 오후5시
- 고대 서창캠퍼스 : 5월 31일 오후5시
- 경희대 수원캠퍼스 : 6월 4일 오후5시
- 충북대 : 6월 5일 오후5시

#### 유형7

#### 광역시도당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업

##### 사례17 경남도당 노동인권교육사업 기획안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사업에 대해

#### 1.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사업 보고

##### 1)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설문 조사

- 1차 조사 기간 : 2007년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 2차 조사 기간 : 2007년 4월초까지 2차 조사 실시  
(1차 조사가 데이터 부족, 김해지역을 포괄하지 못하여 다시금 2차 조사 실시함.)
- 사업 주체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전교조 경남지부
- 조사 지역 : 경남지역의 마산, 창원, 진주, 김해
- 1차 조사 인원 : 354명,
- 조사 방법 : 민주노동당은 거리 설문, 전교조는 학교에서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2.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후속 사업 (고민사항)

-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접수와 해결을 위한 상담소 운영, 거리 캠페인
- 의미 : 상시적으로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접수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 대상 : 아르바이트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대학생, 상가 주인
- 내용 : 피해 사례 접수 후 노동부 연결, 거리 상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최저임금제도와 카드 수수료와 연동하여 진행할 것을 고민)
- 상담소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내 둔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학교 운영
  - : 세부내용은 전교조와 함께 준비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함. 청소년들의 수능이나 창원중등지회의 참실대회 등과도 협의
  - 일정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시기
  - 주최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학생위원회, 전교조 경남지부
  - 목적 : 이후 청소년위원회 사업을 담당할 주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개수업
  - : 615공동선언 공개수업처럼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공개수업 진행
  - “ 청소년,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손으로 ” 조례청원운동
    - 내용 : 고등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일년에 정규적으로 몇시간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처럼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알고 찾기 위한 교육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무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가능성 : 정규교육으로 배정하는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나 특강형식으로 일년에 몇시간 교육을 하는 것은 도단위 차원에서 조례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교육위원과 상담 결과)
    - 이후 구체화 하여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교사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워크숍 : 전교조에서 진행 예정

- 그린 감독관 발대식
  - 내용 :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체, 상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현장의 근로감독관 형식을 시민 조직
  - 그린 감독관 : 당원 및 여성을 대상으로 감독관 임명과 발대식
  - 그린 가게 :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아르바이트 고용에 모범적인 업소를 선정 그린 가게 선정
  - 아르바이트 구인 사업 : 그린 가게와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인 사업을 전개, 이는 지역의 청년실업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와 협의하여 진행

### 3. 고민지점

- 계획은 있으나 집행할 사람이 없는 문제
- 계획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의 문제 등

## 유형8

### 지역위원회 실업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사업

사례18 경기도 시흥시위원회의 실업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사업(안)

## 강의계획서

### 1. 일시 및 장소

- 1)일시:2007년 7월 7일
- 2)장소:시화공고

### 2. 강의 계획

- 1)제목:일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 2)내용:고용안정센터 업무/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임금체불 등의 진정/ 산재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권리침해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현실적인 대처 능력을 높인다.
- 3)대상:시화공고 1학년/ 3학년
- 4)시간:50분

### 3. 강사

- 1)이름:김수정
- 2)직책: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공인노무사
- 3)약력:

부대신문사	1990.9 ~ 1993.6	수습기자/정기자
부대신문사	1993.7.1. ~ 1994.6.30	편집국장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1993.7.1. ~ 1993.12.	의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01.7.25 ~	상담실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02.7.1. ~ 2004.2.28	상담실장 겸 사무국장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04.2.28 ~ 2005.7.1	상담실장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04.7.1 ~	소장 겸 상담실장
민주노동당 시흥시지구당(준)	2003.12.6 ~ 2004.7.20	민주노동당시흥시지구당(준) 대외협력부장
민주노동당 시흥시 지역위원회	2004.7.21 ~ 2005.7.18	민주노동당 시흥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당 시흥시 위원회	2005.7.19 ~ 현재	민주노동당 시흥시 위원회 위원장
1997년	운전면허증	원동기



2000년 11월 7일	공인노무사자격증	
2001년 1월 7일	운전면허증	1종보통

## 다같이 돌아, 일터 한 바퀴

### ● 목표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상황을 체험해보면서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스로,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므로써 방어력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동료 노동자들과의 단결된 힘이 핵심적임을 깨우친다.

### ● 진행방법

1) 다음 준비물을 모두 준비한다.

- ▶ 놀이판 : 놀이판을 크게 복사해서 나눠준다.
- ▶ 놀이말 6개 : 팀끼리는 같은 모양, 각 말의 색깔은 다르게 하여 어느 팀, 누구의 말인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 ▶ 색깔이 다른 주사위 2개
- ▶ 질문카드 : 총 33장의 질문카드
- ▶ 대응카드 : 항의카드 6개, 구체신청카드 6개, 단결카드 6개, 단체교섭카드 2개, 단체행동카드 2개
- ▶ 점수카드 : 10점짜리 30개, 50점짜리 20개, 100점짜리 50개

2) 놀이판을 펼쳐놓고, 그 옆에 질문카드, 대응카드, 점수카드를 나란히 놓아둔다. 대응카드 점수카드를 내용이 위로 보이도록 놓고, 질문카드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엮어둔다.

3) 3사람씩 두 팀을 만들고, 놀이의 진행을 돕고 점수를 관리할 '심판' 1명을 둔다.

4) 놀이 참가자들에게 아래 '놀이 규칙'을 알려주고, 놀이 규칙이 가진 의미도 함께 알려준다.

### ● 놀이규칙

#### ▶ 놀이 개요

- ① 3사람이 한 팀을 이뤄 상대팀과 겨룬다.
- ② 참가자 각자에게는 자기말이 있다. 참가자들은 각자 100점씩을 미리 갖고 출발한다.  
- 의미 :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주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인권을 지켜낼 잠재력이 있다.
- ③ 중간에 갖고 있는 점수를 모두 잃은 사람은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의미 : 인권침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한다면 몸을 다치게 되든, 잘리든, 지쳐서 그만두든 일터에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④ 팀원 전체가 '단결카드'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대응카드 중 '단체교섭'카드와 '단체행동'카드를 구입할 수 없다.

- 의미 : 단결권은 단체협상권과 단체행동권의 전제가 된다.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할 때 노동자들은 비로소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⑤ 한 팀의 팀원이 모두 먼저 도착점을 통과하면 놀이는 끝난다. 놀이 종료 시 팀원들이 갖고 있는 점수의 합이 더 높은 팀이 승리한다.

- 의미 :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해결 가능성도 높아진다.

⑥ 심판은 점수카드, 대응카드, 질문카드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말이 상황 칸에 도착해 구제신청이나 단체교섭을 선택했을 경우, 상황과의 관련성 혹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질문카드를 선택해 문제를 제시하고 정답여부를 판정해준다. 같은 상황칸에 말이 또 도착하면 더 높은 난이도의 질문카드를 선택해 문제를 낸다. 질문카드를 모두 사용했다면, 말이 상황칸에 도착하더라도 적용 점수를 잃지 않는다.

#### ▶ 진행방식

① 색깔이 다른 주사위 2개의 기능을 미리 구분해 둔다. 하나는 전진할 수 있는 칸의 수를, 또 다른 하나는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알려주는 주사위이다.

② 팀을 번갈아 가며 한 사람씩 순서대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칸'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하고, '점수'주사위에 나온 숫자만큼 '점수카드'를 받는다.

예) 주사위를 던져 '칸'주사위가 3, '점수'주사위가 5가 나왔다면, 세 번째 칸으로 말을 이동하고 50점짜리 점수카드를 받으면 된다.

③ 보너스 칸이나 벌칙 칸에 도착할 경우, 전진 또는 후진하는 칸의 수만큼 점수를 얻거나 잃는다.

예) '3칸 앞으로 전진'이 나올 경우, 말을 3칸 앞으로 옮기면서 30점을 받는다. 만약 '2칸 뒤로'가 나올 경우에는, 말을 2칸 뒤로 옮기면서 20점을 내놓아야 한다.

④ 상황 칸에서 어떤 대응을 하려면, 미리 '대응카드'를 구입해 두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놀이 참가자는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대응카드를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응카드는 한 번에 1장씩만 구입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대응카드를 구입할지는 각자가 정한다. 단, 대응카드 중 '단체교섭'카드와 '단체행동'카드는 팀원전체가 '단결'카드를 모두 갖고 있을 때만 구입할 수 있다.

⑤ 만약 상황 칸에 도착했을 때 갖고 있는 대응카드가 없다면, 칸에 적힌 점수만큼 각자 갖고 있는 점수를 내놓아야 한다. 미리 대응카드를 구입하여 상황에 대비할지, 아니면 대응카드를 구입하는 데 드는 점수를 아껴둘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 의미 : 미 대응력을 길러두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고스란히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

⑥ 대응카드를 구입해 둔 상태에서 상황칸에 말이 도착하면, 갖고 있는 대응카드의 종류에 따라 '항의/구제신청/단체교섭/단체행동' 네 가지의 대응방식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항의와 구제신청 카드는 1번 사용하면 다시 구입해야 하는 소모성 카드이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카드는 한번 구입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소모성 카드이다.

#### \* 각종 카드 사용 용도 \*

◎ 항의 카드(1회 소모성 / 상황 1 ~ 상황 4까지 사용 가능)

: 항의카드를 사용하면 상황칸 점수의 50%만 잃게 된다. 단, 항의카드를 사용할 때는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직접 '항의'를 하는 시범을 보여야 통과할 수 있다.

- 의미 : 항의를 할 경우 노동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되겠다는 경고를 전할 수 있다.

◎ 구제신청 카드(1회 소모성 / 상황 1 ~ 상황 7까지 사용 가능)

: 구제신청 카드를 사용하면 심판이 뽑아둔 질문카드에 적힌 문제를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 문제를 풀면 질문카드에 적힌 점수를 얻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상황칸에 적힌 점수를 잃는다.

- 의미 : 노동자가 법이나 인권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 단결 카드(구입 이후 효력 유지)

: 3명의 팀원 모두가 단결카드를 구입했을 때에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과 같은 집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의미 : 단결은 '단체협상'과 '단체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 단체교섭 카드(구입 후 계속 사용 / 모든 상황에 사용 가능)

: 이 카드를 사용하면, 심판이 뽑아둔 질문카드에 적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단, '구제신청'카드와 달리 팀원이 함께 문제를 풀 수 있고, 점수를 잃을 경우 팀원이 분담해서 점수를 내놓아야 한다.

- 팀1 : 답을 틀리더라도 상황칸에 적힌 점수의 -50%만 잃게 된다.

- 팀2 : 문제를 틀릴 경우,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넘어간다. 상대방이 맞추면 질문카드에 적힌 점수를 얻게 되고, 틀려도 점수는 그대로이다. 만약 상대방이 틀리면 심판은 정답을 알려준다.

- 의미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지혜와 단결된 힘에 기반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 단체행동 카드(구입 후 계속 사용 / 상황 8 ~ 상황 10까지 사용 가능)

: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팀원 전체가 각자 50점씩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이후 2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에 따라 팀원 전체가 점수를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다.

- 합이 1~4일 때 : 상황칸에 적힌 점수를 고스란히 내놓아야 한다.

- 합이 5~8일 때 : 상황칸에 적힌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

- 합이 9~12일 때 : 팀원 모두 함께 점수를 받는다(9일 경우 각자 90점씩 획득)

- 의미 : 단체행동은 노동자들이 출혈을 감수하고 힘겹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결단이다. 단체행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회사나 정부의 탄압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놀이판>



다. 출발하기구기

도착 파악해 노동인권을 지켜내셨군요.	30	상황 10: 정리하고 - 300점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 주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28 오아시 60점을 받으세요	27	상황 9: 부활노동쟁쟁 - 250점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 주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25	상황 8: 노동조건 개선 - 200점 반대급 노동조건을 개선해 주는 상황을 제시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23 이만~이 60점을 내세요	22	상황 7: 휴식하고 - 180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20	19	상황 6: 노동쟁쟁 - 160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16 이만~이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점수 내기
1														
2 오아시 3간 입으려														
상황 3: 쉬는 시간 - 80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4														
5														
7														
8 이만~이 3간 뒤려		상황 3: 휴식/쟁쟁 - 120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10	상황 4: 정리하고 - 120점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 주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12	상황 5: 신장쟁쟁 - 140점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 주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13 오아시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점수 획득	15	16					

다가이 돌바퀴  
일터 한바퀴



## 똑딱똑딱 조건별 프로그램 만들기

### ● 목표

참여자들의 특성과 교육 요건에 맞는 '맞춤형'노동인권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 진행방법

- 1) 먼저 노동인권교육 진행자들이 교육 공간(주로는 학교의 안과 밖), 참여자 수, 교육기간 등 다양한 요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
- 2) 강사단 학교 참가자들이 풀어내고 싶은 요건을 골라, 비슷한 욕구를 가진 이들끼리 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밖에서 5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짜보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끼리 모이도록 한다.
- 3) 모둠 구성이 끝나면, 교육의 목표, 소요시간, 참여자 수, 참여자의 특성 등을 구체화한 다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짜보도록 한다. 활동내용을 기술할 때는 가급적 프로그램의 진행방법까지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4) 모둠별 토론이 끝나면 교육 기획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한 모둠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다른 참가자들은 좋았던 점,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 기획안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 1. 실업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사업

### ■ 목표

실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여 노동시장에 편입되더라도 기초적인 노동상식과 노동조합으로 접근성을 높이며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제고

### ■ 방식

#### ① 제2회 청소년 노동인권강사단 학교 개최

- 2006년 1회 강사단 학교, 제2회 강사단 학교를 통하여 당내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마련
- 2007년 2회 강사단 학교 이후 전교조와 협의하여 하반기 실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추진(가).

#### ② 노동인권교육책자 제작 및 배포

- 현재 한국노총에서는 경총,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직장생활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실업고등학교에 배포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 당에서 민주노총, 전교조와 협의하여 '노동인권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강사단에서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③ 국회의원(대선후보) 일일 노동인권교사

- 단병호, 최순영 의원이 진행하였던 방식으로 일일 교사가 되어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한다.

#### 예시1) 경남도당 노동인권 공개수업(안)

##### ■ 노동인권 공개수업

: 615공동선언 공개수업처럼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공개수업 진행

- “ 청소년,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손으로 ” 조례청원운동
  - 내용 : 고등학교에서는 성교육을 일년에 정기적으로 몇시간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성교육처럼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알고 찾기 위한 교육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무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가능성 : 정규교육으로 배정하는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나 특강형식으로

일년에 몇시간 교육을 하는 것은 도단위 차원에서 조례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교육위원과 상담 결과)

#### 예시2) 경기도당 시흥시위원회 시화공고

##### ■ 추진배경

- 시흥지역의 시화공고에서는 여성단체와 사회시민단체에서 사회교육방식으로 다양한 교육을 해 왔음. 올해에는 노동인권교육을 한 강의로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음.
- 민주노동당에서 독자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지역내의 사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년 7월 7일
- 장소 : 시화공고

##### ■ 강의 계획

- 1)제목:일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 2)내용:고용안정센터 업무/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임금체불 등의 진정/ 산재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권리침해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하여 현실적인 대처 능력을 높인다.
- 3)대상:시화공고 1학년/ 3학년
- 4)시간:50분

## 2. 지역차원에서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

### ■ 목표

지역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 방식

#### ① 지역별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가) 결성

- 지역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민주노동당의 명의로 추진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 지역의 청소년단체, 인권단체, 여성단체, 전교조, 청년단체,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과 함께 '000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가)'를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시) 대전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 ② 쉼터 노동인권교육사업 추진

- 관악구위원회에서 지역 청소년 쉼터에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함.
- 청소년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한 근로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인권침해가 심하다고 함. 이에 지역차원에서 청소년 쉼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함.
- 지역별로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 쉼터가 있는 만큼 관악구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예시) 서울시당 관악구지역위원회 청소년 쉼터 노동인권교육사업(안)

## ③ 지방정부 청소년문화사업에 관여

- 지방정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문화체험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대다수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새로운 기획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함.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기획하여 제안하여 지역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사업

### ■ 목표

대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사업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전 노동상식을 높이며 노동조합으로의 접근성을 높임. 또한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취업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차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냄.

### ■ 방식

#### ① 대학생 대상으로한 노동인권교육사업

-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
-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례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당국과 교섭하여 취업설명회시 노동인권교육시간을 배정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
- 2007년 하반기 학생회 선거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공동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2008년 교육투쟁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② 대학내 노동인권교육 학회 및 동아리 설립사업 지원

- 대학내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만들어 냄.
- 중앙당에서 학내 학회 및 동아리 설립에 있어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육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학생위원회에서 노동인권사업 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들에 대한 강사교육을 추진함.

## 4. 제도개선사업 추진

- 2008년 총선이후 교과내용을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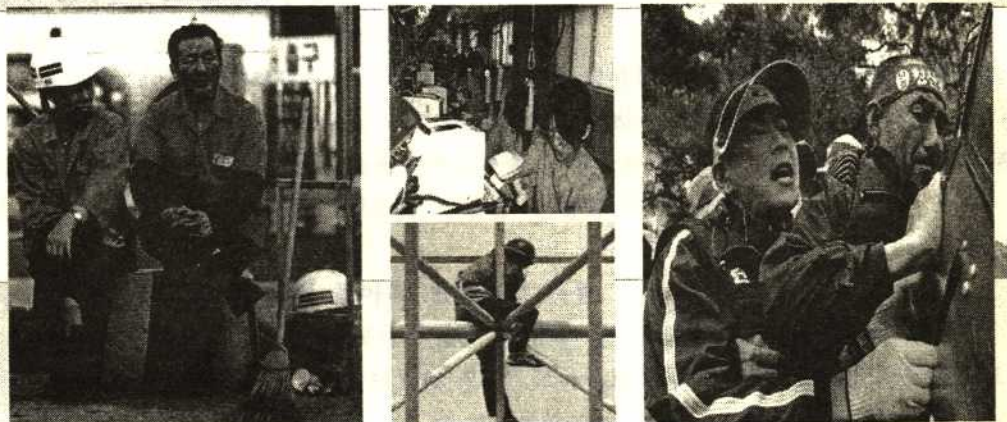
#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세상을 굴리는 힘? 노동, 노동자, 노동인권

###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 누가 노동자일까요?

● 노동자이면 O표, 그렇지 않으면 X표



세상을 굴리는 힘? 노동, 노동자, 노동인권

### 현장실습생은 노동자?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1810](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31810)

●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에 인권은 없다(오마이뉴스 기사)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장실습을 대폭 제한하는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 노동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 3학년 2학기, 현장실습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인 연례행사가 됨.
- 근무조건이나 회사 환경과 상관없는 강요 아닌 강요.
- 파견 등 간접고용인지 알려주지 않거나 실습계약을 위반.
- 작업복 비용을 임금에서 떼면서 잔업과 특근을 시키는 경우, 장시간 중노동, 위험한 작업환경, 성희롱, 부당해고 등의 인권침해.
- 실습 중 부당한 처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실습을 그만두는 경우 중단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는 문제.
-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배워야 할 것.

세상을 굴리는 힘? 노동, 노동자, 노동인권



■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

■ 인간답게 일할 권리(헌법 제32조)

-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 노동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세상을 굴리는 힘? 노동, 노동자, 노동인권

일하는 조건은 미리미리 분명하게 - 근로계약

- 만 18세 이상은 자유롭게 근로계약할 수 있어요.
- 사장님이 근로계약서가 왜 필요하냐고 해요.
  - 일하는 조건(근무기간, 업무내용과 장소, 노동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은 아주 중요하고 서로 약속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 사장님은 일하는 조건을 노동자에게 미리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명시의무)
  - 임금이 관해선 반드시 서면으로!  
(한부를 복사하여 보관해야죠.)

■ 근로계약서 예시

\_\_\_\_(이하 "갑"이라 함)과 \_\_\_\_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3. 업무의 내용 (직종):
4. 근로 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시○분 ~ ○시○분)
5. 근무 일 / 휴 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 간(일, 월) 급 : 원 (해당 사항에 ○표)
  - 기 타 급 여 (제수당등): 없음( ) 있음: 원(내역별 기재)
  - 임 금 지 급 일 : 매월(매주) 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 급 방 법 : 을에게 직접지급 또는 예금통장에 입금 등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주소: (전화: )  
대표자: (서명)  
(을) 주 소: 주민번호: (전화: )  
성 명: (서명)

일하는 조건은 미리미리 분명하게 - 근로계약

인간다운 삶의 시작 - 노동시간

■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주40시간근무제)

- 100명 미만은 일주일 44시간
-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 쉬는 시간은요?

- 4시간에 30분 이상 줍니다.
-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크리스마스에도 출근하나요?

- 당연히 유급인 휴일 : 주휴일, 노동절(5/1)
- 달력상 빨간 날 : 삼일절, 제헌절 등 회사에서 미리 정해두는 대로 쉬어요.
-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날을 정해서 청구하여 사용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시작 - 노동시간

■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노동자 권리

- 생리휴가 : 매월 하루씩 쓸 수 있습니다.
- 산전후휴가 : 출산일을 포함해서 총 90일.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
- 육아휴직 : 아기가 만 1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쓸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만3살까지 1년 동안)



인간다운 삶의 시작 - 노동시간

일한 만큼 정당하게 - 임금

■ 월급날 안 주면 어떻게 하죠?

●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 ① 현금인 돈으로(은행 계좌로)
- ② 그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 ③ 매달 한번 이상 월급날을 정해서
- ④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월급날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접수  
ex)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피자집 주인이 월급을 안줄 때 :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진정

■ 임금체불 사례

- 장사가 안 된다고 월급대신 물건을 가져가라는 것
- 본인이 아닌 사람(부모, 친구)에게 대신 월급을 줬다며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것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외에 방값, 전기세, 상조회비, 물품사용료 등을 떼고 주는 것

일한 만큼 정당하게 -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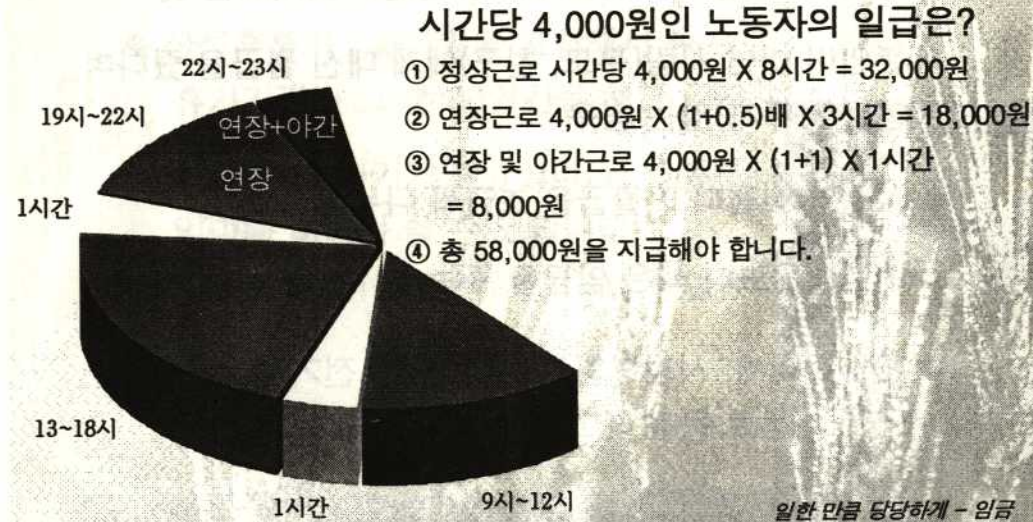
■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5인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경우, 퇴직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지급
-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 둘 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월급봉투에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정당한 퇴직금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 임금

■ 8시간보다 더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 연장, 야간, 휴일 근무 50% UP!



일한 만큼 정당하게 - 임금

■ 임금에도 최저기준이!

- 시간당 3,480원 (2008년 3,770원)



- 주 44시간 월 786,480원
- 여러분이 자립생활을 한다면 필요한 비용은? ( )원
- 하루 8시간 일하고 한달 벌 수 있는 돈은? ( )원

일한 만큼 정당하게 -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권리

? 일자리 보장과 해고, 퇴직

■ 그만 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 사업주는 강제로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 한달 전에 미리 그만둔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 사람을 구해 놓으라는 등 조건을 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이유 없이 저만 그만 두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될 이유가 있어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게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서울, 경기, 인천)지방노동청 (지역)지청 진정

노동자로 살아갈 권리? 일자리 보장과 해고, 퇴직

■ 계약직은 기간이 끝나면 꼭 그만 두어야 하나요?

-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었거나  
본인만 계약해지된 경우  
부당해고

- 비정규직 노동자  
: 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 특수형태고용 노동자



노동자로 살아갈 권리? 일자리 보장과 해고, 퇴직

■ 간접고용의 대표적 사례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1655>

-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하라 (매일노동뉴스 기사)
  - 철도공사가 KTX 운행하면서 여 승무원을 한국철도유통에 위탁.
  -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업무지휘를 받지만 철도유통에 소속되어 임금을 받고 노동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음.
  - 승무부문은 항상 필요한 업무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이르자 철도공사는 위탁업체를 바꿔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고 함.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에서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남용과 성차별적인 행태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
  - 정부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방침을 철회하고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할 것임.

노동자로 살아갈 권리? 일자리 보장과 해고, 퇴직

건강한 일터? 재해보상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 일하다 다쳤는데 그냥 나가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산재신청을 안해주거나 가입을 안했어도 노동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에서 회사가 산재에 가입했는지를 알 수 있고  
요양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받아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으로 요양신청 가능합니다.



■ 사장님이 병원비 준다고 산재신청하지 말래요.

● 사장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공상은 산재를 숨기는 것.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니 믿을수 없음)

● 산재로 인정되면

- ① 병원비(요양급여)
- ②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 ③ 장해급여, 재요양, 후유증상의 치료
- ④ 유족급여, 장의비



건강한 일터? 재해보상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 일하다 병에 걸린 것도 산재인가요?

● 산재 : 일을 하던 중(업무수행성) 또는  
일 때문에(업무기인성)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직업병

- 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 심장질환
- ② 지나친 반복작업과 부적절한 자세,  
무거운 물건 운반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 ③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난청
- ④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건강한 일터? 재해보상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 요양신청을 하기 전에..

- 사고를 당했다면 동료 등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 질병의 경우 업무과 질병이 연관 있다는 자료를 준비.

■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에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현장실습생도 직업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터? 재해보상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평등한 직장 만들기 -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 여자라고 차별하면 성차별이죠?

●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 성차별이란?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 또는 노동조건에서 불리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기술, 책임, 경력, 근속년수 등을 고려한 차별은 가능.

- ① 모집, 채용
- ② 임금, 수당
- ③ 교육, 배치, 승진
- ④ 정년, 해고



■ 과장님이 음란물도 많이 보고 야한 얘기도 하는데..



평등한 직장 만들기 -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 성희롱, 이렇게 대처해요.

- 명확한 거부 의사.
- 성희롱 행위자에게 중단 요구.
- 증거 확보.
- 상급자와 상담하거나 고충처리기구에 상담.
- 국가인권위에 진정.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평등한 직장 만들기 - 직장내 성차별과 성희롱

## 국가를 통한 최저생존권 보장 - 4대 보험

■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빠지는데..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임금의 0.45%
- 산재보험 : 산재보상, 재활지원  
전액 사업주 납부
- 국민건강보험 : 의료비 부담 낮추기  
노동자 4.5%, 사업주 동일
- 국민연금 : 노후 생계 보장  
노동자 2.24%, 사업주 동일

■ 해고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 ① 근무한 경력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 ③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
- 절차 : 고용안정센터에 이직 확인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고용안정센터 찾기  
<http://edi.work.go.kr/jsp/inf/HPINF2012L.jsp>

국가를 통한 최저생존권 보장 - 4대 보험



## 평등한 노사관계 ? 노동3권 보장

■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어도 참게 되요.

-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헌법 제33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 노동3권을 해치는 사업주의 행동  
= 부당노동행위 -> 형사처벌

## ■ 노동조합은 어떤 단체인가요?

-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법으로 인정된 단체.
  - ① 교사와 공무원
  - ②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 ③ 사업장 단위나 지역별, 산업별 단위
-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통해 유리한 근로조건을 만들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평등한 노사관계 ? 노동3권 보장

노동자가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직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Q & A



## 비정규 노동·차별신고 센터

### 비정규 노동·차별신고 센터(1577-2260) 전국배치도

#### ■ 서울지역

- ▶ 서울동부 비정규노동센터(02-463-2475) : 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 ▶ 민주노총 서울본부(02-2269-0947) :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 비정규차별신고센터(02-2139-7867) : 서울 나머지 지역

#### ■ 경기도 지역

- ▶ 안산시흥 비정규노동센터(031-480-5303) - 안산시, 시흥시
- ▶ 수원 비정규노동센터(031-251-5303) - 수원시
- ▶ 고양·파주 비정규노동센터(031-907-0419) - 고양시, 파주시
- ▶ 의정부 비정규노동센터(031-852-5670)-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 ▶ 구리 비정규노동센터(031-557-6724) - 구리시, 남양주, 가평
- ▶ 민주노총 경기본부(031-268-9640) - 경기도 타 지역

#### ■ 인천지역

- ▶ 민주노총 인천본부(032-525-1802) - 인천 전지역

#### ■ 광주지역

- 광주비정규노동센터(062-951-6615)

#### ■ 부산 지역

- ▶ 부산비정규노동센터(051-638-2610)

#### ■ 전북지역

- ▶ 민주노총 전북본부(063-244-8165)

#### ■ 울산 지역

- ▶ 울주군 비정규노동센터(052-254-2499) : 울주군, 남구
- ▶ 민주노총 울산본부(052-286-7990) : 울산시 타 지역

#### ■ 대구지역

- ▶ 대구비정규차별신고센터

#### ■ 기타 지역

-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이병수 비정규차별신고센터(02-2139-7867)